

韓國 傳來童話에 나타나는 社會化 道具로써의 服飾分析

鄭美慧·金鎮玖*

부천전문대학 의상디자인과 부교수,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n Analysis on Costume Socialization in Korean Traditional Fairy Tale

Mee-Hye Chung, Jin-Goo Kim

Department of Clothing Design, Vice Professor of Bucheon Junior College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目次

Abstract	3. 자아정체감의 습득
I. 서론	4. 도덕성 습득
II. 이론적 배경	5. 제도에 대한 이해 습득
III. 한국전래동화 이해를 위한 배경	6. 사회계급에 대한 이해 습득
IV. 한국전래동화에 나타난 복식 사회화의 분석	7.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 습득
1. 규범과 가치관의 습득	V. 결론
2. 역할의 습득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lothing socialization in Korean fairy tales by the socialization theory. Clothing socialization analyzed of seven categories-norm, role, self-identity, morality, institution, social class and social change. From the costume in the korean fairy tales, clothing socialization can be visualized.

I. 서 론

어린이가 자람에 따라서 그 어린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방향으로 발달하게 된다. 신체적으로는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운동능력이 향상된다든가 하는 것이며, 정신적으로는 어떤 것을 상상한다든가 구체적인 지식을 배우게 된다든가 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는 다소 일관성있는 인격구조를 발전시킴으로써, 수줍다거나, 꾸준하다거나, 혹은 친절하다든 등의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발달 그 자체는 한 인간이 어떻게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은 인간이 살면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문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장소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그러한 장소에서 기대되는 행위는 어떤 것이며, 그러한 행위의 기준은 무엇이며, 자신의 기대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서도 아무 것도 암시하는 바가 없다.

물론 갓난애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여러가지 관행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의 잠재력은 광범하고 다양하며 또한 환경에 의해 다르게 표현된다. 어린이는 '사회화'라는 어떤 기준의 그리고 계속적인 집단의 관행에 대한 학습¹⁾에 의해서 어린이는 그에게 기대되는 것을 관념적으로 알게 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느낀다.

사회화는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데, 사회화란 출생시의 비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이 삶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존재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이 특정한 문화권에 태어나서 습관, 신념,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고 그 문화권의 가치체계를 내면화하여 그 사회의 성원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며²⁾, 또한 각 개인이 스스로에게만 특유한 개성, 자기다움, 정체 의식을 갖게 되는 상태로 그것이 남과의 교섭에서 의미있는 사람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며, 이렇게 인간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³⁾.

문학은 언어 문장에 의해서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해준다⁴⁾. 특히 아동문학은 독자인 어린이로 하여금 작품이 그려진 세계와 작중 인물의 사상, 감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시야와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인간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생활의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미적인 취미와 예술적 인식을 길러 주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도 크다⁵⁾고 할 수 있다.

사회화는 일생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며, 인생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사회화도 중요하나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형성하는 시기인 어린이에게 사회화는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가 사회화과정을 습득할 때 교육의 매체로 동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동화에 나타나

1) Fredrick Elkin, 이동원 옮김, 아동과 사회, (서울:삼일당, 1980), p. 4.

2) 전병계, 사회심리학, (서울:경문사, 1993), p. 258.

3) 김정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박영사, 1994), p. 174.

4) L. H. Smith, 김요섭역, 아동문학론, (서울:정음사, 1979) p. 17.

5)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울:서문당, 1983), p. 13.

는 복식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동화의 표현양식의 3대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이루어내는데 복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화에 나타나는 복식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연구의 시도에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화와 아동문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나는 복식이 사회화의 도구로써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나는 복식에 대한 서술이나 그림이며, 분석재료는 한국출판 문화상 어린이 도서상을 수상한 국민서관의 [한국의 전래동화](전 20권, 103권)로 삼았으며, 분석기법은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화의 개념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사회의 한 성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학문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이 사회화 현상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30년 대에 들어와서이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거의 동시대에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인류학에서 사회화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회화란 개념은 다분히 가치 지배적이고 기술적이며 분석적인 개념이다. 사회화로의 개념적 변천은 사회철학적 입장에서부터 실증적 사회과학에의 관점적 변화에 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시대에 와서 차츰 개인중심적 사고에서 사회중심적 사고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화가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강조하는 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에 대한 후천적인 사회적 영향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사회에 관한 연구는 대개 문화인류학, 인성심리학, 그리고 사회학의 세 분야에서 각기 행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제각기 사회화의 특정 측면만 강조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이들 각 분야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사회화의 세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문화동질화 과정으로서의 사회화로써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이 날 때 가지고 있는 백지상태(tabula rasa)가 특정문화에 젖어들어 동질화되어가는 과정을 사회화란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다.

둘째, 충동의 통제능력형성과정으로서의 사회화로, Freud는 인간의 superego의 형성과정을 곧 사회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이 타고난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욕구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규제되어 스스로가 자기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사회화라고 보고 있다.

셋째, 역할훈련과정으로서의 사회화로서, 이는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사회화의 한 측면으로서, 이것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⁶⁾.

미국의 이름난 심리학자 William James는 신생아의 세계를 '터무니 없이 소란스럽지만 한 혼돈'일 거라고 했다⁷⁾. 개개인의 인성은 그 개인이 놓인 사회 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

6) 전병제, 전계서, pp. 255-257.

7) E. Bobby, Society by Agreement, (Belmont, Cal. : Wadsworth), p. 103.

면서 형성된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불리워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회화(socialization)란 한 사회 속의 문화가 전승되고 개인이 조직된 생활양식에 적응하는 과정인 동시에,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개인 각자가 보다 성숙한 사회인으로 커가는 과정이며⁸⁾ 최소한도 각 개인이 스스로에게만 특유한 개성, 자기다움, 정체의식을 갖게 되는 상태로, 그것이 남과의 교섭에서 의미있는 사람다움⁹⁾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사회화 과정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접근

1) 정신분석학적 접근

Freud는 원래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을 타고 태어난 인간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본능을 표출하도록 통제를 가하는 사회적 힘과의 갈등속에서 어떻게 인성을 발달시켜 나가는가를 논의한다¹⁰⁾.

Freud는 이드(id)의 맹목적인 욕구가 현실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서서히 발달되는 에고(ego)의 형성 다음에 양심(conscience)과 이상아(ego ideal)의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슈퍼에고(superego)가 다시 형성된다고 했다. Freud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화란 이드(id)의 맹목적인 역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에고(ego), 부모를 통해서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 되어 형성되는 슈퍼에고, 그리고 본능적 이드와 사회적 슈퍼에고의 맹목적 대립과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에고의 발달과정을 뜻한다¹¹⁾.

Freud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과정 개념은 동일시(identification)라는 것이다. 사람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부모)의 행동유형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어린이가 본뜨는 어른들과 정서적으로 완전한 동일감을 갖게 되어야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따라서 그들을 모방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인지학적 접근

사회화에 관해서 인지학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관심은 사회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적 조상(cognitive representation)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의 문제이다.

Piaget는 사회화를 인지발달 과정의 측면에서 설명했는데 그는 인지발달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첫단계는 운동지능의 발달단계이고, 두번째 단계는 언어의 발달단계이며, 세번째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지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원인과 결과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신의 입장을 형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열한 두 살쯤 되면 이제 아이들은 추상적인 사고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8) 전병제, 전계서, p. 258.

9) 김경동, 전계서, p. 174.

10) 오명근, 이종수역음, 사회학, (서울:민영사, 1992), p. 142.

11) 안계춘 외, 현대사회학의 이해, (서울:법문사, 1993), pp. 145-146.

의 아론도 검증할 수 있게 된다¹²⁾.

Piaget는 인지 발달 과정에 대한 이러한 이론과 아울러 어린이의 도덕성 형성에 대한 이론도 제시하는데 즉 어린이의 도덕성을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으로 나누고 있다. 그에 의하면 4~8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곧 어른들의 규범에 의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타율적 도덕성을 가지는 반면, 8살 이후의 어린이 자신의 규범에 바탕해서 도덕 판단을 내리는 자율적 도덕성을 가진다고 한다¹³⁾.

특기할 것은, 사회화를 자아발달의 과정으로 볼 때, 어린이들이 성숙단계마다 그에 알맞는 성숙요인들을 갖추어감으로써 비로소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탈피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아는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¹⁴⁾.

3)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사회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자기가 태어난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미의 체계를 습득하는 과정이며, 이 의미체계의 습득과정은 곧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의 관점을 내면화 하는 과정, 즉 자아속의 「Me」가 형성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결국 역할행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역할행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자아의식의 확립, 자기의 사회적 존재를 둘러 싸고 있는 상황의 올바른 정의, 자기의 역할행위의 상대역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할담당능력 등이 함께 갖추어져야 되는 것인데, 상호작용론자들의 사회화 이론의 내용이 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은 삶의 특정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 평생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 관점에서는 특히 강조하고 있다¹⁵⁾.

Mead는 인간의 자아(self)가 주체적 자아(I)와 객체적 자아(Me)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양자가 마음(mind)을 매개로 하여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주체적 자아는 거의 생득적인 반면에, 객체적 자아는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 객체적 자아는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자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나온다고 한다. 그의 이론은 어떤 점에서 바로 이 객체적 자아의 형성과정을 해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회화 과정에서 객체적 자아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을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의 역할취득(role-taking)에서 일반화된 타자의 역할 취득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¹⁶⁾.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상징의 세계, 의미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뜻하는데 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결국은 의미있는 상징(significant symbols)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타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택해 볼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곧 다른 사람들과 의미있는 상징을 공유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¹⁷⁾.

12) 상계서, p. 147.

13) 오명근, 이종수역음, 전계서, pp. 144-145.

14) 김경동, 전계서, p. 183.

15) 전병제, 상계서, pp. 268-269.

16) 오명근, 전계서, p. 141.

17) 전병제, 전계서, p. 267.

4) 학습이론적 접근

전통적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발전되어온 현대학습이론은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이제는 외부의 사회문화적 요인보다는 사회화가 되는 당사자의 학습기제(learning mechanism)라는 인간내부적 요인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⁸⁾. 즉, 사회문화의 맥락 속에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배운다는 과정 그 자체를 이론의 초점에 두는 이론이다¹⁹⁾.

사회화 과정에 대한 학습이론은 크게 행동주의적 학습이론과 모방이론적 학습이론이 있다.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는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 물질적 보상이나 칭찬을 받는 경우에는 그 행동을 반복하겠지만, 그 반대로 그 행동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벌을 받는 경우에는 그 행동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온당하고 옳은 행동인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모방이론적 입장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공적인 사회화는 어린이들이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결과라고 한다. 요컨대 이 이론은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적당한 역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²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사회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네 가지 관점에서의 사회화에 관한 이론적 접근의 특색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이 타고 난 생리적인 욕구가 사회규범이 내면화하면서 어떻게 다스려지지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인지학파에서는 후천적, 환경적 요인을 덜 중요시하고, 사람이 자기환경을 파악하는 바탕이 되는 인지적 조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학습주의파에서는 인간의 배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학습과정을 특히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화란 개념이 각기 어떻게 규정되든 이 네 관점이 제각기 사회화 과정의 보다 더 폭 넓은 이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론들을 제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²¹⁾.

3. 사회화의 내용

이상과 같이 현대 사회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네 가지 관점에서 사회화에 대해서 살펴본바와 같이, 위의 네 가지 관점에서 강조하는 사회화의 내용은 규범과 가치관, 역할, 자아정체감, 도덕성 습득에 있다. 여기에 사회화가 일어나는 사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회가 있어서 그 속에서 사회화 되어진다는²²⁾ 전제하에 다소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회의 지적전통을 전달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 습득, 큰 사회내에서 이루는 사회적 세분화중의 하나인 사회계층에 대한 이해 습득, 사회화가 일어나는 사회는 정적인 사회가 아니라 동적인 사회라는 면에서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 습득이라는 일곱 개의 범주로 상정하였다.

18) 상계서, p. 263.

19) 김경동, 상계서, p. 187.

20) 오명근, 이종수역음, p. 144.

21) 전병재, 상계서, pp. 269-270.

22) Fredrick Elkin, 이동원역, 전계서, p. 7.

Ⅲ. 한국전래동화 이해를 위한 배경

1. 동화의 개념적 정의

동화는 초기 아동의 중요한 문학이며²³⁾, 동심을 기조로 하여 지은 이야기체 형식(narrative form)으로 서사장르의 일종이다. 창조적 서술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 경험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함축미를 갖게 되며²⁴⁾ 상징적인 문학으로 개개의 인물조형과 진실을 소박하게 요약했고, 인간의 보편적 진실을 중시한다.

Shipley는 동화의 본질이 스타일이나 음악성이 아니고 그것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에 있다²⁵⁾라고 하여 동화가 인간경험의 많은 원천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함축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으므로 동화의 본질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의 동화기는 대략 4세에서 시작하고 지속기간은 어린이에 따라 다르며, 그들의 환경과 교육정도에 따라 좋아하는 동화의 종류도 다르다²⁶⁾.

동화는 어떠한 소재를 다루든지 간에 어린이가 불의가 아닌 정의심에 호소하고 이것을 붙들우어 줄 수 있는 내용, 강자를 사랑함과 아울러 약자를 동정하고, 애정의 고귀함을 맛보게 하는 내용 등 여러가지 인생의 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어야 한다.

동화의 가치를 종합해 보면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주고, 어린이들의 경험을 확산시켜주고 또 풍부하게 해 주며,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즐거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언어능력과 심미적 상상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볼 수 있겠다.

2. 동화의 분류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학의 2대 양식에 따라 아동문학을 분류하면 첫째, 산문과 운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문은 다시 동시와 동요로 분류할 수 있고 산문의 범주내에 동화, 소년소설, 아동극이 있다²⁷⁾. 둘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구적인 3분법에 의해 서정양식과 서사양식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으로써, 서정양식의 시, 서사양식의 소설, 극양식의 희곡으로 구분되며, 동화는 서사양식에 속하며, 전래동화와 창작동화로 구분할 수 있다²⁸⁾.

3. 전래동화

전래동화를 사전적으로 말하면 한낱 이야기일 따름이다. 이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의 확정 없이 마음대로 꾸며진, 상상적이며 이상한 사건에 관한 비교적 짧은 전래적, 오락적 산문 서사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²⁹⁾.

23) Karl Bueher, 이진숙역, [아동심리개요], (서울:울유문화사, 1958), p. 108.

24) 이윤자, "현대동화에 미치는 신화및 전래동화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집, 1976, p. 6.

25) Joseph T. Shipley, Dictionary of World Liteary Terms, (Boston: The Written In Co, p. 102.

26) Karl Buehler, 이진숙역, 전제서, p. 109.

27) 이재철, 전제서, p. 176.

28) 구인환, 김은전, 이상익, 『아동문학』,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 1974), p. 51.

어린이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그들과 함께 성장한 전래동화는 동심과 천심을 구비하고 있는 서사시이다.

전래동화의 주된 효과는 지적으로 성숙되기 이전의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인 상상의 언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접함으로 해서 어린이가 그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을 깨우치게 만드는데 있다. 의식 발달 이전의 내용을 담은 동화의 이미지는 그 다음 단계에서 간단한 예로 전달해 주는 내용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것들을 일깨워 준다. 이렇게 전래동화는 효과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다른 어린이로 하여금 그들의 상상력을 활용하게 만들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²⁹⁾.

전래동화의 주제를 분석, 검토해 보면 네가지 유형이 추출된다. 첫째, 권선징악형으로, <정의는 이긴다> <죄는 죄 값을 치른다>는 식의 고대소설이나 전래동화의 주제는 선을 추구하는 인간 마음의 표현이다. 둘째, 보은사상형으로, 전래동화는 은혜값은 이야기가 많다. 즉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을 내용으로 하는 보은의식은 불교의 원인과 결과는 응당 보답을 받는다는 인연설과 인과응보사상의 영향이다. 셋째, 충효사상형으로, 충효이념은 유교의 이념이다. 또한 이것은 예와 낙과 더불어 유교적인 치국의 이념이었다. 부자간에, 부부간에, 임금과 신하간에 지켜야 할 삼강의 행실을 보면 충효는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이었고 생활방식이었다. 이러한 생활방식에서 구전된 전래동화는 자연히 그러한 의식을 담고 있다. 넷째, 기타, 서민의 애환, 순간적 기지, 해학 등을 다룬 이야기가 많다³⁰⁾.

IV. 한국 전래 동화에 나타난 복식 사회화의 분석

1. 규범과 가치관의 습득

한국전래동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신분간의 차별이 규정된 사회제도였으므로 각 신분에서 입을 수 있는 복식도 규정이 되어 있었다. 다만 전래동화의 특성상 서민을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시켜 주로 하층계급의 복식 형태에 대한 묘사가 주로 되어 있다.

머리모양은 어린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비롯하여 결혼전의 처녀 총각은 머리를 땀고, 땀기를 맨다. 결혼 후는 상투를 틀거나 쪽을 짓게 되어 있다.

의복의 형태는 시대를 불문하고 치마저고리와 바지저고리를 갖춰 입게 되는데, 신분에 따라 의복의 옷감이 좋아 보이고, 호박 등의 장식품이 보인다.

신분이 올라갈수록 갖춰 입는 옷가지 수가 많아지는 것도 특징이다.

신발은 짚신이 대부분이었으나, 신분이 올라갈수록 가죽신의 형태도 보인다.

장신구는 임금님이나 공주든 화려하게 보여야 되는 신분에서만 주로 보인다.

2. 역할의 습득

화랑은 원술과 사다함 등에 의해 묘사되어 있는데 「화랑 사다함」에는 「이사부장군은 사다함과 무관에게 훌륭한 갑옷을 주었습니다. 사다함과 무관은 갑옷을 입고, 이사부 장군을 따라

29) Bruno Bettelheim, *The Uses of Enchantment : The Meaning and Memory, Importance of Fairy Tales*, (New York:Random House, 1977), pp. 45-46.

30) 김주연, "전래동화속에 나타난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가치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77, p. 22.

31) 이윤자, 전제서, pp. 33-37.

싸움터로 떠났습니다.»이라고 묘사되어 있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것을 나타냈다.

〈해님과 달님〉에서 「어느 날이었습니까. 해가 졌는데도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 엄마 옷을 보면 열어 줄테냐?」... 과연 어머니의 옷이 맞았습니까. ...오무이는 정말 어머니인 줄 알고 얼른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앗, 이게 웬일입니까! 부엌 안에는 어머니의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어머니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어머니의 옷이 목소리보다도 우선 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목소리는 감기 등으로 변화 가능한 것일 수도 있으나 어려운 그 당시의 형편으로는 어머니의 옷은 고정된 것으로 어머니의 옷은 곧 어머니를 뜻하며, 곧 그것은 어머니라는 역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상한 뱃들〉에서 「어느 날, 도둑은 신하의 옷차림을 하고 정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하로 변장한 도둑은 정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라는 것은 역할을 위장한 것을 의미한다.

「임금님의 뺨을 때린 나뭇군」에서는 「임금님은 나뭇군에게 병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내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온지 이틀도 안되어, 나뭇군은 관복을 벗어놓고 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관복을 벗는다는 것은 판서의 역할을 내놓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땅 속 나라의 도둑귀신」에서 「한번은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님의 따님 셋을 한꺼번에 잡아 갔습니다. ...공주는 수박(수박으로 변한 젊은이)을 앞치마에 썼습니다.»라고 묘사하여 공주의 과거와 현재의 역할이 현저하게 틀려졌음을 암시한다. 앞치마란 공주의 신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3. 자아정체감의 습득

자아의 형성은 곧 독특한 존재로서의 인간개체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체감은 참으로 자기만이 갖는 자기다움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이미지이다.

「나뭇군과 선녀」에서 「그 옆에 숨어 있다가 선녀들이 목욕을 하거든,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어 두시오.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오. ... 과연, 선녀들이 옷을 벗어두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뭇군은 선녀의 날개옷 한 벌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날개옷마저 입은 선녀들은 등실등실 떠올라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선녀만은 아직도 날개옷을 못 찾아 찢찢 매고 있었습니다. ... “옷은 내가 가지고 있소, 내 아내가 되어 주시오.” ... “안 되어요. 날개옷을 돌려 주세요. 나는 하늘에 사는 선녀라서, 땅 위의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라는 위의 이야기에는 자아를 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지는 모든 것, 혹은 그가 그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볼 때, 선녀는 선녀 이름으로 불리워질 때, 가장 선녀다움 곧, 날개옷을 입은 선녀의 자아를 상실한 것이 된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아를 회복하려는 노력하에 날개옷을 찾으려고 한다. 「예전에 당신이 감춰 둔 날개옷을 좀 보여 주세요. 아이를 셋이나 낳고, 이미 땅위의 사람이 되었어요. 날개옷을 주신다 해도, 아이들을 두고 어찌 하늘로 가 버리겠어요? 그저 날개옷을 한 번 만져 보게만 하여 주세요. ... 나뭇군은 날개옷을 꺼내어 선녀에게 주었습니다. ... ‘옳다. 이걸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자.’ ... 선녀는 훨훨 날개옷을 펴리며, 하늘나라로 날아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신의 자아를 회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하에 드디어 성공하는 모습을 엿보게 한다.

「도꼬마리와 한삼덩굴」에서는 「예전처럼 엄마가 아기의 무덤 곁을 지나치려는데, 무언가가 치마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내려다 보니, 도꼬마리의 꽃에서 맺은 열매였습니다. …“아가야, 너도 엄마가 몹시 보고 싶은가 보구나. 이 엄마가 얼마나 그리우면 치맛자락을 붙들고선 놓아 주지 않니? 나도 네 곁으로 가고 싶구나. 아가야.”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치맛자락에 도꼬마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엄마는 치맛자락에 붙은 도꼬마리의 열매를 떼면서도, 가시에 찢린 손가락이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여기서의 엄마의 치맛자락은 곧 엄마의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4. 도덕성 습득

「금빛 구슬」에 나오는 어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금빛 구슬을 훔쳐 가 갑자기 부자가 된 심술궂은 할머니를 「개와 고양이는 대문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금빛 구슬을 훔쳐간 게 틀림없어.”」

「은혜 갠 까치」에 나오는 구렁이는 죽은 남편 구렁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밤에 과거 보러 가는 젊은이의 쉼 곳을 제공하는데, 그때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 여인은 젊은이를 구석진 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하여,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나쁜 존재, 또한 인간은 아니지만 남편을 잃었음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낸다.

위의 이야기에서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한 경고가 들어 있다.

「어린 원님」에서는 나이 고하를 떠나서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예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이 어린 원님이 오자, … 누구 하나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이놈들의 뻗뻗한 목을 고쳐주어야겠다. … 며칠 후, 석수가 돌 갓 여섯개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 “자, 그러면 이 앞에 놓인 갓을 하나씩 머리에 쓰도록 하라.” 벼슬아치들은 할 수 없이 돌갓을 머리에 썼습니다. 어찌나 무거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 “내가 이 고을에 온 뒤로, 너희들이 인사 한번 하는 걸 못 보았다. 너희들의 뻗뻗한 목을 고쳐 주려고 이 돌갓을 만들었으니, 앞으로는 이 갓만 쓰고 다니도록 하라.” … “앞으로는 원님을 하늘같이 모시고, 인사도 잘 하겠습니다.” … “음, 보아하니 너희들 목에 생긴 병이 이제야 고쳐진 모양이구나.”」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당시의 엄한 예의 범절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도깨비감투」에서는 쓰기만 하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신기한 감투를 이룬데, 「젊은이는 가난하면서도, 조상들의 재사만은 꼬박꼬박 지냈습니다. … 젊은이는 무심코 도깨비감투를 썼습니다. 젊은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깨비 감투를 쓰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 젊은이는, … 도둑질을 하러 다녔습니다.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잘 살게 되자, 젊은이는 도둑질에 재미가 났습니다. … 금은방주인도 도깨비감투를 쓰고 다니며 도둑질을 하였습다. … 그 찰나, 일군이 휘두른 도리깨열에 도깨비 감투가 걸려 벗겨졌습니다. … 금은방 주인은 일군들에게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와 같은 이야기에서 평소의 근면하고 재사 잘 모시던 젊은이와 장사 열심히 하던 금은방 주인이 도깨비 감투에 의해 일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스스로 화와 복을 택하도록 하여, 권선징악의 정신을 가르치는 본격담이다.

「원님을 바꾼 거울」은 「거울이 흔하지 않던 옛날 일입니다. … 그런데 원님은 마음이 나빠,

마을 사람들을 괴롭혀 온 분이었습니다. ... 원님은 거울을 받아 들고, 들여다 보았습니다. 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외관을 점잖게 차려 입은 원님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이쿠! 신관사또께서 남시었군요? 소식도 없이 오시다니! 어쨌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 빛 대신 산 거울이 가장 불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마침내는 못된 원님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다고 까지 이야기를 꾸민 것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진 인간상을 기리는 순박한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렁이와 젊은이」에서는 용왕의 딸인 우렁이 색시를 탐하는 악한 임금과 착한 젊은이의 대결을 통해 선과 악이 맞싸우는 형식을 취하는데, 즉 환상의 절대자 용왕이 착한 젊은이를 도와 나쁜 임금님을 물리치는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중에 용왕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 연락방법으로 편지를 묶은 가락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락지란 하나의 장신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초현실자를 교묘히 교류시켜 주는 매개체로써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명예로운 죽음」에서 정침은 전라도 나주에서 낮은 벼슬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 갑자기 왜적들의 배가 나타나, 정침의 배를 추격하였습니다. ... 왜병에게 항복하자고 하였습니다. ... “아, 안타까운 일이다. 화살이 없으니 이제는 도리가 없구나.” 정침은 활을 내려놓고, 관복을 꺼내어 단정하게 갖추어 입었습니다. ... 사람들은 그의 명예로운 죽음앞에, 머리 숙여 존경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강감찬 장군」에서 거란군을 무찌른 강감찬장군은 서울로 돌아와, 임금님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강감찬장군! 무엇으로 장군의 큰 공에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소.” 하며, 장군의 머리에 금으로 만든 꽃을 꽂아 주었습니다.

「권율 장군」에서 「장군님, 큰일났습니다. 화살이 다 떨어졌습니다. 바윗돌도 몇 개 안 남았습니다.” ... 성 안에 있던 여자들이 치마폭에 돌을 주워 담아 가지고 군사들에게 달려왔습니다. ... 여자들은 군사들 앞에 돌맹이를 쏟아 놓으며 말하였습니다. ... 성 안에서 수백 명, 수 천명의 여자들이 치마폭에다 돌을 주워 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마가 헤어져 떨어졌습니다. 여자들은 헤어진 치마위에 짧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속 돌을 날렸습니다. ... 지금도 여자들이 입는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 합니다. 행주산성때 이 치마로 돌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라는 위의 세가지 이야기는 충성심을 기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임당과 이올곡」에서 인선(사임당의 아명)에게는 언니가 하나, 여자동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어느 해 추석에 아버지가 새 옷감을 사 왔습니다. 막내딸에게는 새 옷을 해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둘째 딸 인선이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제 것으로 동생 옷을 해 주세요.” “네 옷은 어찌려고? 그렇잖아도, 넌 옷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엔 네 옷을 꼭 해 주려던 참이었는데.”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새 옷이 필요 없어요. 헌 옷이면 어때요? 작년에 큰언니가 입던 옷을 입겠어요.” 인선은 조금도 서운해 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라는 이야기에서는 형제간의 우애를 기리는 태도가 엿보입니다.

5. 제도에 대한 이해 습득

동화에 나타나는 제도로는 관혼상제에 관한 것이 대표적이며 서당과 과거가 나오고 있다.

제사는 「은혜 깊은 두꺼비», 「도깨비감투」 등에서 나타나듯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갖과 형편에 따라 비록 기워 입은 도포라도 갖춰 의관을 갖춰 입은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전래동화에는 제물로 바쳐지는 처녀가 종종 나타나는데 머리를 풀거나, 흰 땀기를 드린 머리 땀은 모습에 소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온다.

혼인은 「좁쌀 한톨」에 묘사되고 있는데 신랑의 사모관대모습에 색시의 원삼 족두리 전형적인 신부모습으로 묘사되며, 신부 양측의 수모의 모습도 보인다. 「땅 속 나라의 도둑귀신」에서 공주와 혼인하는 젊은이는 사모관대의 전형적 신랑의 모습이나, 공주는 단지 화려한 모습이나, 치마저고리차림으로 나와 정확한 묘사는 못 보여주었으나, 족두리와 비녀의 화려함으로 공주의 품위를 보여 주었다.

상례는 직접 장례장면 등이 나오는 것은 없으나, 상복을 입은 모습이 나오므로써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사임당과 이율곡」에서 「집으로 달려온 율곡은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율곡은 어머니 무덤 옆에서 흙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삼 년동안 그 흙집에 살면서 어머니 무덤을 돌보고, 음식을 차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라고 하며 그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여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과거는 「사임당과 이율곡」에서는 「율곡이 열세살 되던 해에, 나라에서는 과거를 보았습니다.」에서 과거에 앉아 시험보는 모습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다.

서당은 「글방이야기」, 「암행어사 박문수」등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6. 사회계급에 대한 이해 습득

전래동화의 배경을 신라니 조선이니 하여 어느 정도 시대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옛날 옛날」 또는 「아주 옛날」 등의 수식어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은데 동화를 읽으면서 그 글의 이해를 도와주는 그림으로 인하여 동화의 배경이 되는 사회계급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 상류계급

전래동화에는 단군 이후의 여러 건국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신화는 천지 개벽이나 인류의 유래, 나라를 세운 이와 그 업적, 시조 등에 관한 신성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이야기」, 부여의 「금와 임금님」, 고구려의 「동명성왕」, 신라의 「박혁거세 임금님」, 「석탈해 임금님」, 가야의 「김수로 임금님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여기서의 복식을 묘사한 그림은 대체적으로 삼국시대의 복식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왕을 의미하기 위해서 금관, 의복의 장식의 화려함 등으로 다른 등장인물과 차별화 시켰다. 복식의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왕의 높은 신분을 나타낸 듯하다.

개국 신화나 시조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으므로 난생 설화입니다. 알에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신분의 범상치 아니함을 나타내기 위해, 금궤짝, 비단 보자기, 아니면 금빛이 알을 둘러싸고 있다는 묘사를 하고 있다.

삼국시대 「임금님의 귀」의 임금님과 「임금님을 올린 충고」, 「슬기로운 여왕」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슬기로운 여왕」에서는 후에 선덕여왕이 된 덕만공주를 이야기 한 것인데 유와 고 상, 위에

포를 입은 모습이다. 위낙은 포는 자색이고, 홍색의 선을 들렀다고 하는데, 색상은 정확히 묘사된 것은 아니나, 대체적인 형태는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다.

「김유신 장군과 원술」에서 화랑은 유와 고를 착용하고 있는데, 유는 소매통이 넓고, 길이가 길어 띠로 허리를 뻗으며, 갓, 도련, 소맷부리에는 선을 들렀다. 화랑복에는 조우형 절풍, 소피대, 흑피화 등을 착용하였다. 김유신 장군의 부인은 신라의 귀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 유와 상, 의례 때 입는다는 포를 덧입었다.

아버지를 살린 아들」의 임금님은 높은 의자에 앉아, 머리에 관을 쓰고, 배경은 고려시대이나 조선시대 왕의 곤룡포와 같은 형태의 의복을 입었다. 「임금님의 뺨을 때린 나뭇꾼」에서의 임금님은 어가를 타고, 익선관 형태의 관에 곤룡포를 입은 모습으로 나온다. 「땅 속 나라의 도둑귀신」의 임금님은 옥좌에 앉아, 익선관에 곤룡포 차림으로 나온다. 「무학 대사와 이성계」에서 태조는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은 모습으로 나온다.

원님 : 대부분 조선시대 구군복의 형태의 의복을 착용하고, 전립과 비슷한 형태의 모자, 목화와 같은 형태의 신발을 갖추어 신었다. 「좁쌀 한 톨」의 정승 모습, 「달을 단 대감님」, 「오성대감 이항복」의 이항복의 아버지와 이웃집 대감은 도포차림에 정자관 형태의 갓, 조끼의 호박단추, 손에는 부채나 긴 담뱃대를 든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2) 중류계급

「겨울의 참외」좌수 ; 일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형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의복을 착용, 갓을 쓰고, 두루마기 형태의 겹옷, 바지저고리 등을 착용한 모습으로 묘사.

「은혜 깊은 까치」 과거를 보러 가는 젊은이,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바지저고리, 갓을 쓴 모습, 「진주를 삼킨 거위」에서의 선비는 갓에 하늘색 도포차림, 짙은차림, 먼 길 떠나는 것을 나타내는 피나리보름에 여러 켈래의 짙신이 엮여져 있다.

「저승에 따라온 빛장이」에 나온 의원은 같이 나온 빛을 진 사람보다는 월등 좋은 옷차림으로 나오는데 머리는 상투에 망건 비슷한 것을 쓴 모습이며, 회색의 바지저고리 차림이나 상당히 좋아 보이는 옷감으로 만든 조끼에 호박단추를 달아 입은 모습이다.

3) 하류계급

「백결선생과 거문고」에서 옛날 신라에 거문고를 잘 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가난하여, 옷을 백군데나 기워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백결 선생'이라 불렀습니다.」라고 묘사하여 지극히 가난함을 묘사하였다.

「임금님의 귀」에 나오는 관을 만드는 노인은 삼국이 동일하게 유(저고리)와 고(바지)를 입었다. 유는 소색이며, 끈은 갓에 소매가 좁고 검은 색 선을 들렀으며, 허리에는 포백대를 매었다. 이런 차림의 서민 남자는 흑건을 쓰고 짙신을 신었다.

「나무도령」, 「해님과 달님」, 어린 남자, 여자아이의 옷은 길이가 짧고, 바랜듯한 색의 옷감, 헤어질 곳을 여기저기 기워 입은 남루한 의복, 부시시한 머리와 아름답지 못한 땡기나 아주 땡기가 없는 모습, 신발은 짙신 등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호랑이와 차돌」의 열 살 먹은 소년은 바지저고리에 조끼를 갖추어 입고, 바지부리에 행전

을 갖춘 모습이다. 「아버지를 살린 아들」, 「한석봉과 어머니」에 나온 소년은 땀은 뻘은 머리, 흰색의 바지저고리 차림, 짙신을 신은 모습이다.

「은혜 값은 두꺼비」, 결혼 안한 처녀의 모습은 머리를 땀고, 치마저고리와 짙신 등을 신은 모습,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다.

「해님과 달님」, 「호랑이와 차들」, 「도깨비잡투」 「바보 사위」, 「한 석봉과 어머니」에서 어른 여자의 모습도 아이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오래 입어 낡은 듯한 모습의 치마 저고리모습에 궁색한 집안 형편을 나타내는 듯한 여러 곳을 기워 입은 모습이 보이고, 헤어진 짙신을 신고, 머리수건을 쓰고 앞치마를 꼭 두르게 하여 일을 해야만 하는 계급임을 나타내 준다. 「머리 이흠 달린 도둑」의 색시와 여자 종의 모습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색씨는 노랑저고리와 다홍치마로 만들어진 고운 옷을 입고 나오는 데, 여자 종은 흰색 저고리에 여기저기 기워 입은 모습에 짧은 길이의 치마, 짙신을 신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온다.

「아버지를 버리는 지게」, 「금빛 구슬」, 「아버지를 살린 아들」, 「바보 사위」에 나온 남자어른은 머리에 상투를 틀고, 이마에 흰색 띠를 두르거나, 흰색의 저고리와 바지, 짙신을 신은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저승에 따라온 빛장이」에 묘사된 빛을 잔뜩 진 사람은 심하게 기워 입은 옷에 맨발차림에 짙신을 신고, 빛장이로 나온 사람은 두루마기차림에 버선을 신고 짙신을 신은 모습으로 차별화시켰다. 「어리석은 도깨비」에 나온 어부는 흰색의 바지저고리는 다른사람들과 같았으나, 고기잡이 배와 그물을 같이 놓아 어부임을 강조했다.

「달을 산 대감님」, 「오성 대감 이항복」에 나오는 하인은 더벅머리를 겨우 딴 듯한 머리에 이마에 흰 수건을 동여 매고, 흰색의 바지저고리를 입었고, 바지부리와 저고리 소매를 걷고, 맨발에 짙신을 신은 모습으로 나온다.

4) 계급이동

「한석봉」이 「임금님은 석봉의 글씨를 보더니, “과연 우리나라의 제일의 명필이로다!” ... 명필 한석봉은 중국에서 돌아와, 임금님으로부터 벼슬을 받았읍니다.»라고 하여 관복을 입어 신분상의 수직상승을 이룬 것이 나타난다.

「심 청이야기」에서는 「남의 집 일을 해 주고 받은 품삯으로 쌀을 사, 밥을 지었습니다. 심청은 매일 방아 찧기, 빨래하기, 밭 매기 등 힘든 일을 하였습니다.»와 같이 매우 곤궁하고 신분상으로도 미천했던 심청이 임당수에 빠진 후 용왕님에 의해 연꽃에 실려 다시 세상에 보내진 후 왕비가 되므로써 가상의 이야기에서나마 계급의 수직상승을 이룬 예가 되었다.

「홍부와 놀부」에서는 「어느 해, 흉년이 들어서 홍부네 식구는 먹을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 홍부는 빵에 붙은 밥알을 떼어 먹으며,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사정이 이야기 해주듯 아주 빈한한 홍부가 제비의 도움으로 큰 부자가 된 것으로 나와 같은 신분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상황이동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7.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 습득

1) 종적인 변화

「이 세상의 맨 처음」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생긴 연유를 그린 이야기로 성경에서는 하느님

의 뜻으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하늘나라의 어린 공주가 떨어뜨린 가락지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장군이 구름을 타고 땅나라로 내려와, 가락지를 찾으려고 사방이 진흙으로 된 땅나라의 흙을 떠낸 자리는 바다가 되었고, 떠낸 흙무더기는 산이 되었고, 손바닥으로 고르게 해 놓은 곳은 들판이 되었고, 손가락으로 긁어 놓은 곳은 강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민화에서 어린 아이의 실수에 가까운 장난을 천지창조의 말미로 삼은 까닭은, 어린이는 곧 인생의 시작임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비유로써 밝히고자 한 것이겠지만, 하였든 천지창조의 기폭제로 가락지가 이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수로 임금님」에서 수로왕이 그의 왕비를 맞이할 때, 「공주를 실은 배는 멀고 먼 가야국을 향해, 바다를 달렸읍니다. . "저는 아유타의 공주입니다. 하느님의 명에 따라 멀고 먼 바닷길을 건너 가야국으로 왔읍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공주와 시녀의 복식의 화려함과 그 의복이 우리나라의 옷이 아닌 인도의 것과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임을 강조했다.

「연오랑과 세오녀」에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옷을 입고, 연오랑은 그제야 자기가 낯선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 낯선 나라는 바다 건너에 있는 대화국이라는 나라였읍니다. ... 세오녀는 남편을 찾으러 다니다가, ... 아주 낯선 바닷가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 사람들은 일찌기 본 일이 없는 옷들을 입고, ... 세오녀도 바위에 실려 대화국에 온 것이었읍니다.」라는 내용 설명과 함께 연오랑과 세오녀를 맞는 일본사람들의 의복을 자세히 그림으로 묘사하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획적인 변화

「박혁거세 임금님」에서 「어느 때, 바다 건너 일본의 해적들이 신라에 쳐들어왔읍니다. ... 또 한번은 북쪽에 있는 낙랑의 군사들이 도독질하러 쳐들어왔읍니다.」

「슬기로운 여왕」에서 「어느 해 임금님은 중국에서 온 사신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읍니다. 선물을 펴보니, 아름다운 꽃이 그려진 병풍과 꽃씨가 들어 있었읍니다.」

「신라의 제상 박제상」에서 「신라의 임금님인 눌지왕은 복호와 미사흔이라는 두 아우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두 아우는 오래 전에 이웃나라 고구려와 일본에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일본에 계시는 미사흔왕자님마저 모셔와야 할텐데.' ... "미사흔 왕자님, 어서 저 배를 타고 신라로 돌아가십시오.」

「강감찬 장군」에서 「북쪽 거란의 오랑캐들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 왔읍니다. 강감찬은 총 지휘관이 되어, 고려군을 이끌고 싸움터로 나아갔읍니다.

「해당화와 짙레꽃」에서는 「옛날 고려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고려는 중국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읍니다. 고려는 해마다 예쁜 처녀들을 뽑아 원나라에 바쳐야만 하였읍니다.」

「도라지꽃」에서는 「옛날에, 도라지라는 소녀가 오빠와 둘이서 살고 있었읍니다. 도라지와 오빠는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았읍니다. 그러던 중, 오빠가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었읍니다.」

「권율 장군」에서 「조선 선조 임금님때 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읍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당」에서도 「선조 임금님 때 수많은 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읍니다. ... 그 때, 서산

대사와 사명당은 전국의 스님들을 거느리고 왜군과 싸워,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사명당은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포로를 데려오는 데도 크게 활약하였습니다。」라는 내용 서술과 함께 사명당이 승병을 진두지휘하여, 왜군을 무찌르는 그림이 나온다.

위의 종적인 변화 횡적인 변화는 전래동화에서는 사회내의 체제의 큰 변화가 묘사되어 있지 않아, 시간적인 변화를 종적인 변화로, 인접국과의 교류, 전쟁 등의 좋지 않은 상황도 횡적인 변화로 상정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전래동화에 나타난 복식을 통해 복식사회화를 고찰해 보았다. 현대사회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네가지 관점과 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조건을 포함하여, 복식사회화는 규범과 가치관, 역할, 자아정체감, 도덕성, 제도, 사회계층, 사회변화의 습득이라는 범주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규범과 가치관의 습득은 의복규범이 계급별로 철저히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할의 습득은 옷을 입었다, 벗었다라는 것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나타내주었다.

셋째, 자아정체감의 습득은 의복을 입음으로써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도덕성의 습득은 전래동화의 특성상 권선징악의 주제가 많으므로 충, 효, 우애, 근면함을 권장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다섯째, 제도에 대한 것은 혼인, 제사, 상례 등을 의복을 통해서 인식케 해주었다.

여섯째, 계급에 대한 것은 상류계급은 호사스러움으로, 하류계급은 헤어지고 기워 입는 의복 등으로 나타내어 습득케 해주었다.

일곱째, 사회변화는 종적으로는 시간적 개념으로 태초부터 시작하여 이후까지, 횡적인 개념은 인접국과의 교류 등으로 나타내주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래동화를 통해서도 다양한 복식사회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감태준 외 12명, 「한국전래동화전집」, 서울 : 국민서관, 1985.
2.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 박영사, 1994.
3. 김주연, “전래동화속에 나타난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가치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1977.
4. 구인환, 김은전, 이상익, 「아동문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1974.
5. 안계춘외, 「현대사회학의 이해」, 서울 : 범문사, 1993.
6. 이윤자, “현대동화에 미치는 신화및 전래동화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6.
7.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울 : 서문당, 1983.
8. 오명근, 이종수외, 「사회학」, 서울 : 민영사, 1992.
9. 전병제, 「사회심리학」, 서울 : 경문사, 1993.

10. Bueher, Karl. 이진숙역. 「아동심리개요」. 서울 : 을유문화사, 1958.
11. Elkin, Fredrick. 이동원 옮김. 「아동과 사회」. 서울 : 삼일당, 1980.
12. Smith, L. H. 김요섭역. 「아동문학론」. 서울 : 정음사, 1994.
13. Bettelheim, Bruno. *The Uses of Enchantment ; The Meaning and Memort Importance of Fairy Tales*. New York : Random House, 1977.
14. Bobby, E. *Society by Agreement*. Belmont : Wadsworth, 1977.
15. Shipley, Joseph T. *Dictionary of World Liteary Terms*. Boston : The Writen In Co.